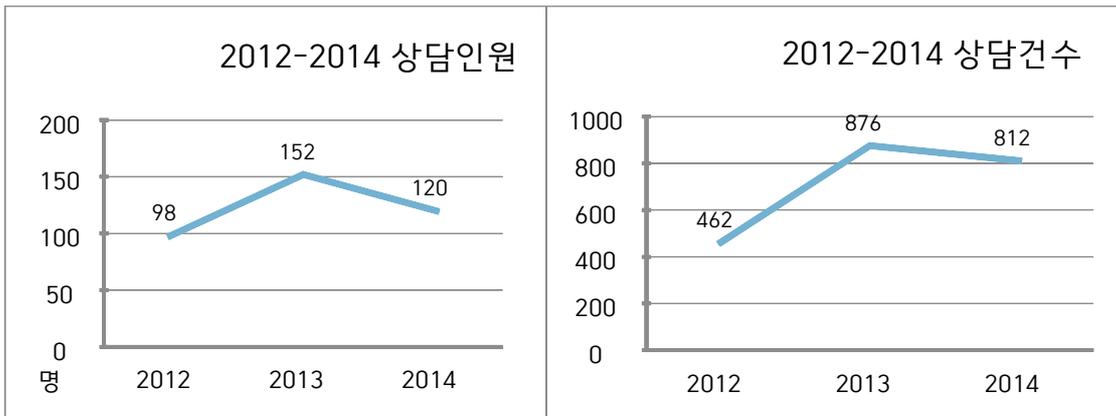


2014 상담통계 및 분석

1. 상담인원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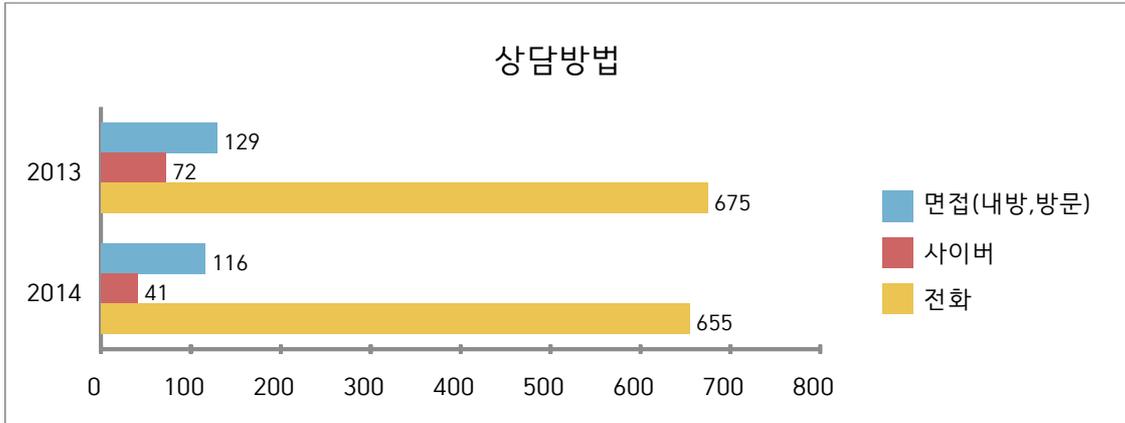


상담인원은 2013년 152명에 비해 2014년 120명으로 약 21%, 상담건수는 2013년 876건에 비해 2014년 812건으로 약 7% 감소했다. 상담건수는 2014년 구조지원비¹⁾를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여 5월 말 경부터 새로운 상담을 모두 타 기관으로 연계해야 했기 때문에 2013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다만 구조지원비의 부족이 21%의 상담인원의 감소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편, 한 내담자가 받는 상담의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지속 상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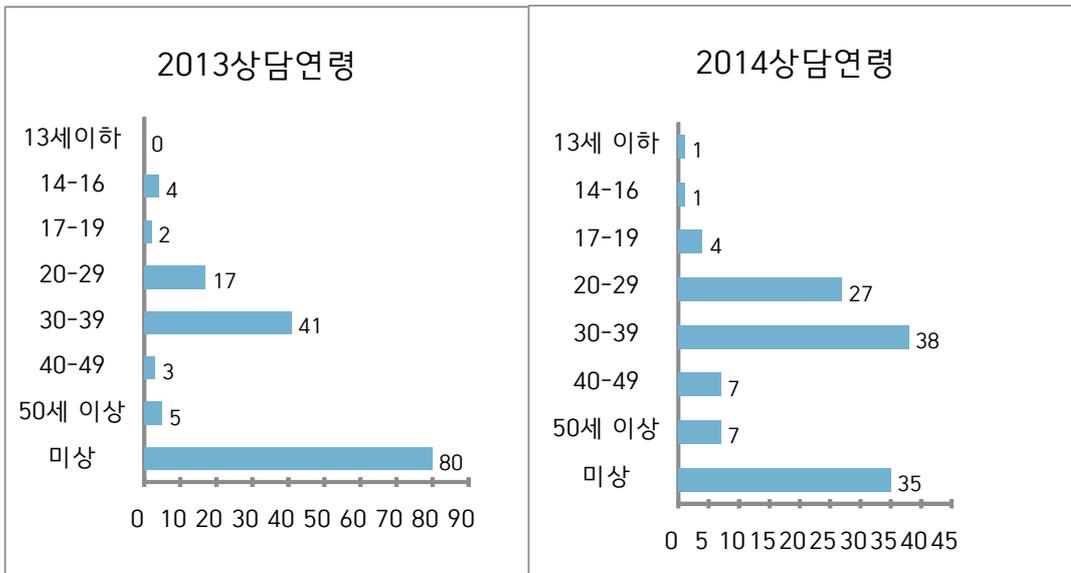
1) 상담소는 매년 여성가족부와 해당자치체로부터 내담자를 지원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지원비와 상담소운영에 사용하는 운영비를 각각 받아 사용한다. 당해연도의 구조지원비는 이전연도에 사용한 구조지원비를 토대로 당해 사용할 예산을 가능하여 배당받는 구조이다. 2014년에는 상반기 내담자들의 연락이 많았고, 큰 지출도 많았기 때문에 구조지원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2. 상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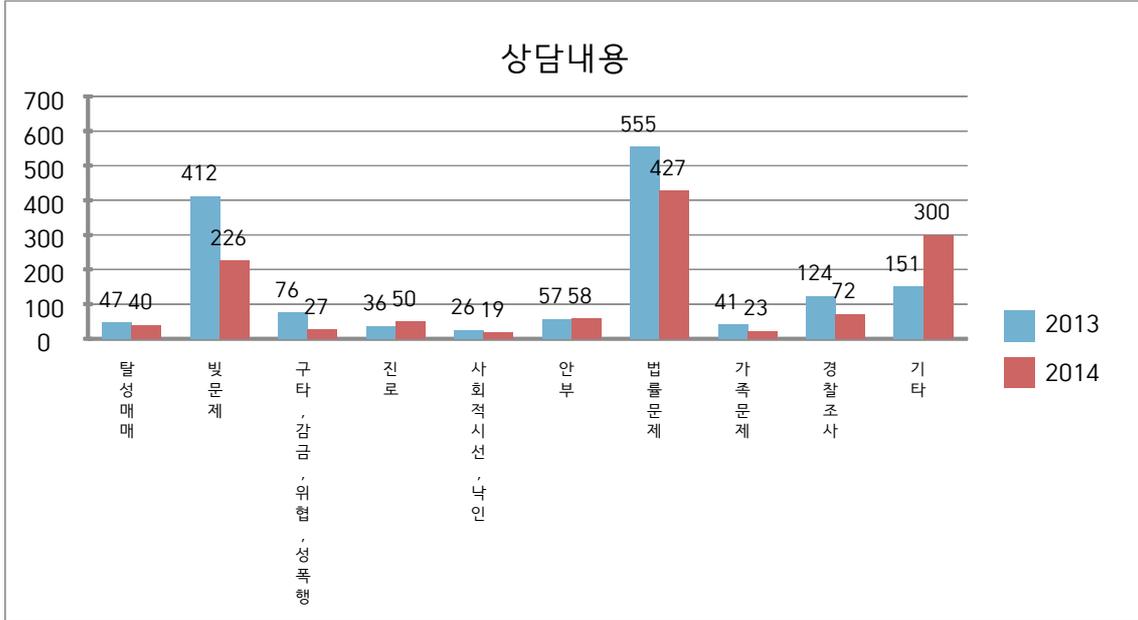
사이버 상담이 다소 감소했으며 면접 상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화, 사이버 상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지속적인 면접상담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3. 상담연령



2014년에 상담연령 파악이 좀 더 확실해지면서 미상이었던 연령대가 드러나 20-29세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여전히 30-39세의 여성들의 비율은 가장 높다. 이는 작년 분석 글에서 드러나는 바와 30대의 성판매 여성들은 장기간의 성판매로 인해 채무문제가 심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며, 성매매를 그만두고자 하는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40대와 50세 이상의 여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에 비해서는 약 2배 늘어났다. 고령의 성판매 경험 여성들은 대부분 안 좋아진 건강으로 인한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50대 여성의 증가는 의료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의 급증을 불러왔다.

3. 상담내용



*기타내용: 의료지원, 일정조정, 학원지원, 쉼터번호, 심리상담, 심정호소,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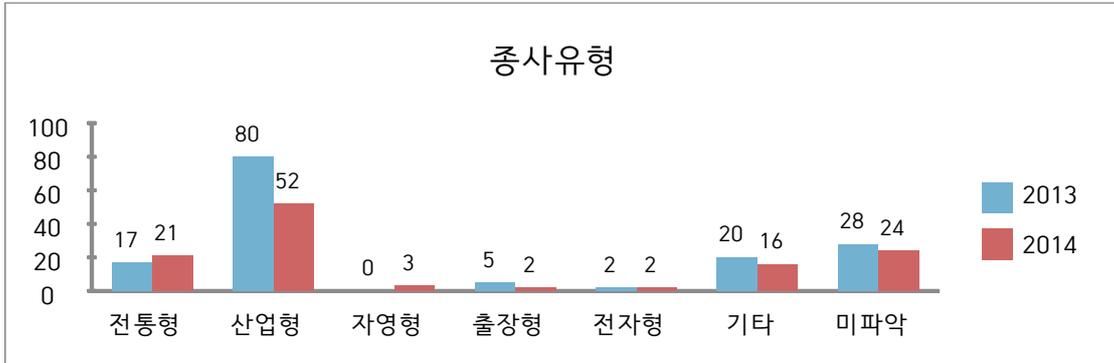
일정조율, 상담업무소개, 생활정보, 해외성매매, 연락처확인, 진단서, 거주문제, 지원제한, 협박, 임신중절, 남자친구문제, 기타질환

상담내용 중 두드러지는 변화는 기타 상담의 증가이다. 기타상담에는 쉼터 연계, 생활정보 전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며 다수는 의료지원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는 많은 내담자들이 의료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 법률문제 항목의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데 비해 빚 문제와 관련한 상담내용은 절반정도 줄어들었다. 이는 법률문제의 내용이 크게 달라져서가 아니다. 상담소에서 빚과 관련된 법률문제일 경우 법률문제 항목으로만 기입하고 빚 문제로는 기입을 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 법률문제의 대부분이 빚과 관련되었음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무효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업주를 통해 직접 지급되는 선불금 추심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금리 대부업을 교묘하게 연결하여 여성의 채무를 만들고 성산업 안의 약자로 남게 하는 현실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에 주기적으로 제기되었던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2014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점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진로고민을 하는 내담자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상담소는 내담자에게 진로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적성을 모색하거나 쉼터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한편 성매매를 그만두고자 하지만 학력, 자본 등의 자원이 없는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직업들은 대부분 저임금, 계약 및 비정규직의 서비스 직종으로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여성 노동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4. 성매매종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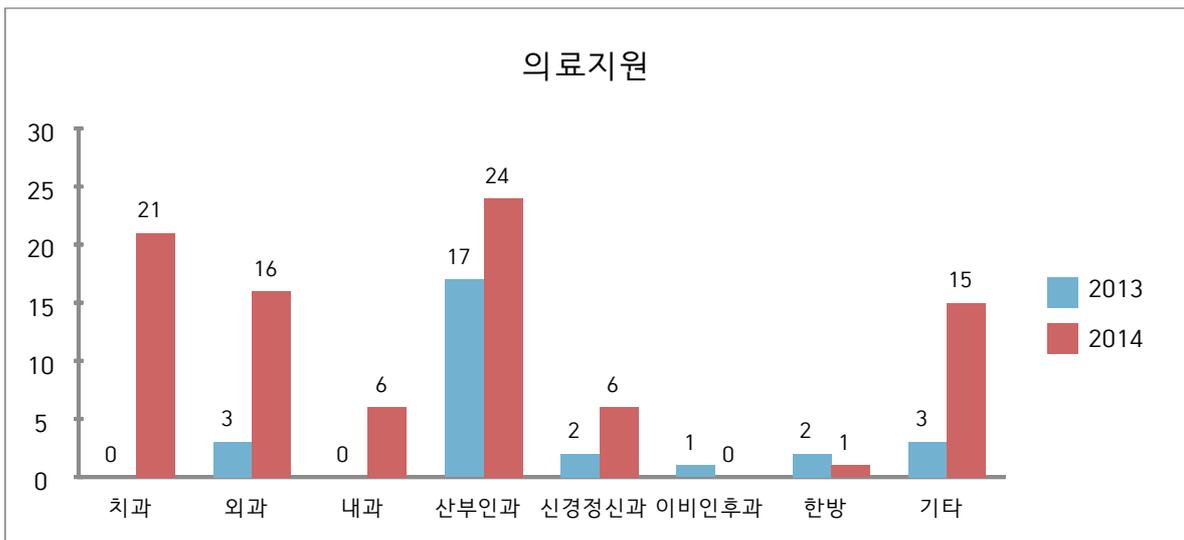


* 기타내용: 조건만남,키스방,호프집,기획사

전체 상담인원이 줄어든 것에 비해 ‘미파악’ 된 종사유형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본인이 처음으로 상담을 의뢰한 인원은 변함이 없지만 가족, 동료, 유관기관, 친구 등이 상담을 의뢰한 인원 비율은 높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종사유형을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 기획사, 호프집 등을 통한 성매매알선 사례들은 성매매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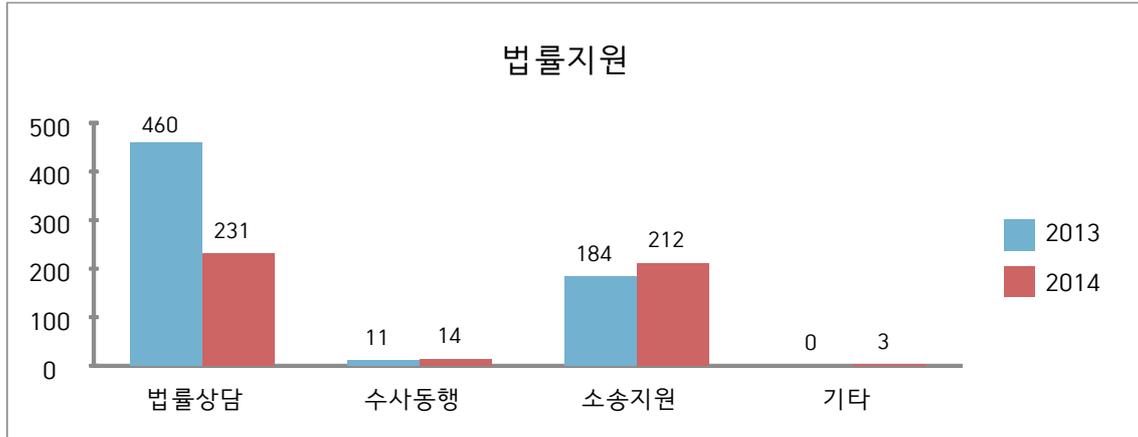
5. 의료지원



2014년의 의료지원은 2013년에 비해 지원건수는 4배, 지원한 인원수는 6명에서 11명으로 2배가 증가했다. 이는 내담자들이 호소한 통증 및 질환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자원이 없는 장년층 내담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과는 신경외과, 항문외과 등을 포함하며, 기타과목으로는 가정의학과가 대표적이다.

의료지원의 범위는 산부인과부터 신경정신과까지 다양하다. 이는 밤과 낮이 바뀌고, 폭음을 주기적으로 해야 했으며, 장기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장기간의 잦은 성매매가 몸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6. 법률지원



2013년에 비해 수사동행과 소송지원은 다소 증가하였고 법률상담은 크게 감소하였다. 법률상담이 감소한 이유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구조지원비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규상담을 타 기관으로 연계했기 때문이다. 반면 소송지원과 수사동행이 2013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5월 전에 이미 접수된 내담자들의 사건이 하반기까지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법률 상담 내용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이미 면책까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면책 당시 누락된 채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다. 이는 대부업 미등록 채권자들, 즉 사채업자들과의 복잡한 채무관계를 의도치 않게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성매매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여성들은 추심하는 전화 한 통에도 상당한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송지원 중 상당수가 선불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었으며 이외에도 파산 및 면책지원, 성매매 알선자 및 구매자 고소,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소개쟁이를 고소하는 형사사건 등이 있었다.

7. 마치며

2014년 이룸의 상담은 갑작스런 상담 폭증과 이로 인한 구조지원비의 부족으로 인해 불안정했다. 매년 분석을 시도하고 다음을 예상하려 노력하지만 상담 인원의 증가와 감소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기에 갑자기 상담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일에 속수무책이다. 3월, 급증한 상담으로 인해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고 구조지원비가 부족했던 5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내담자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없었다. 다행히 연계기관의 이해 덕분에 변호사 선임비, 증거 마련을 위한 녹취비, 심리상담비용 등을 추후 지급으로 처리하거나 타 기관에 연계할 수 있었으나 필요한 지원을 제 때에 못하는 상담소는 그저 애타는 마음이었다. 2014년 상반기에 급증한 상담인원 및 건수를 바탕으로 구조지원비를 넉넉히 신청하면서도 2015년에는 인원과 건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기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점차 지속상담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속상담의 증가는 상담이 1회의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났음을 반영한

다. 이러한 지속상담의 증가를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한 상담소의 성과로 꼽고 싶다.

-끝-